

전주시 만성지구 업무시설 용도 규제 완화

준주거지역 대규모 업무시설 입지 제한 폐지·필지 합병 허용으로 토지 활용성 극대화 등 추진

전주시가 신도시개발지구인 만성지구 일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업무시설의 입지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준주거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전주시는 만성지구 내 불합리한 개발 규제 합리화와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의 입지 여건 마련 등을 위해 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만성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3000㎡ 이하로 묶여 있던 업무시설 규모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준주거용지 2개 필지의 합병을 허

용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세 가지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금융·업무시설 유치에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 금융사 등 대규모 업무시설의 입지를 가로막던 제한 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만성지구 일대로 금융사 등 대규모 업무시설 유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시는 그동안 규제로 묶여 개발

되지 못한 채 방치돼 온 준주거지역 내 내대지들의 개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집적화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게 돼 전지부본콘텐츠융합진흥원과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해 전복이 K-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7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7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변경고시를 거쳐 신속하게 변경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만성동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던 과도한 업무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혁파하는 조치"라며 "기업과 금융기관이 찾아오고 장기미개발 내대지가 활성화되면 만성지구 전체의 경제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델리코티지(대표 정지희)는 24일 전주시복지재단에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친환경 예코 스트링백 100개(28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작지만 실질적인 나눔 되길”

델리코티지, 친환경 예코 스트링백 100개 기부

델리코티지(대표 정지희)는 24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친환경 예코 스트링백 100개(28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델리코티지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생활용품과 캐릭터 디자인 상품을 선보이며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는 전주 지역 브랜드로,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기부된 예코 스트링백은 친

환경 소재로 제작된 실용적인 가방으로, 전주지역 69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1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지희 델리코티지 대표는 “아이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제221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선과 함께하는 시간’

7월 16일 덕진예술회관에서 방송인 선 초청 강연 개최

전주시는 오는 7월 16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에서 방송인 선을 초청해 ‘제221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선은 네 자녀를 둔 다동이 아빠이자 배우 정혜영의 남편으로, 평소 기부와 선행을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선은 ‘선이 전하는 사랑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오늘 더 사랑해’라는 주제로 일상에서 가족 및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과 작은 선행이 모여 사회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 후에는 선과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보다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는 시간도 제공된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는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e.jonju.go.kr)을 통해 6월 21일부터 선착순 사전 접수(모집인원 450명)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5389)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전

주시 열린시민강좌는 인문, 생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저명 강사와 시민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전주시 평생학습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완산도서관, 35년간 이어온 여류구상작가들 예술적 성취 조명

8월 1일까지 완산마루 전시실서 ‘전북 여류구상작가 12인’ 대관 전시 개최

전주시 완산도서관은 24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완산마루 전시실에서 가사와 육아, 작업이라는 다중적 역할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예술 열망을 이어온 ‘전북 여류구상작가 12인’의 대관 전시를 진행한다.

1993년 봄 첫발을 댄 이후 올해로 35년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에서는 전북 현대미술 내 여성 작가들의 지속적인 작업 세계를 기록하고, 거창한 담론보다는 일상의 조각, 감정의 결, 기억의 파편들을 각자의 따뜻한 색채로 풀어낸 시각예술 작품 70점을 선보인다.

특히 청미 당시의 초심과 현재의 숙련된 시선이 교차하는 작품들을 통해 치열한 삶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버텨온 여성 작가들의 ‘연대의 힘’을 시각화하여 관람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울러 완산도서관은 오는 7월 4일에는 시민들이 예술을 한층 더 가깝게



전주시 완산도서관은 24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완산마루 전시실에서 가사와 육아, 작업이라는 다중적 역할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예술 열망을 이어온 ‘전북 여류구상작가 12인’의 대관 전시를 진행한다.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 ‘우리들의 작은 전시회’도 함께 운영한다.

이 행사는 관람객들이 작가의 생생한 전시 해설과 시민들의 작품 그리기 체험, 완성작을 전시실에 내걸어 함께 완성하는 미니 전시회 등을 경험하는 특별한 소통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영섭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장기간 함께 활동해 온 지역 여성작가들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 스며든 예술의 힘을 느끼길 바란다”면서 “작가와 시민이 함께 완성해 가는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따뜻한



게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24일 시청 강당에서 직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존중과 평등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 전 직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전주시는 24일 시청 강당에서 직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존중과 평등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사회화자이자 작가로 잘 알려진 오찬호 작가가 강사로 나서 ‘일상 속 차별과 혐오의 씨앗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펼쳤다. 오 작가는 이 자리에서 무식코 지나

치기 쉬운 일상 속 차별적 시선과 언어들에 대해,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 냈다.

시는 이날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 내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